

연중 제20주일

제1독서: 잠언 9, 1-6

제2독서: 에페 5, 15-20

복 음: 요한 6, 51-58

# 숲 정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요한6, 54).

## 강론

### “서로 도우며 사는 삶”

박종근 신부 / 용안 천주교회

상행문자인 한(漢)자의 사람 ‘인(人) 자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형상을 표상한 자라고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 인(人) 자에서, 사람이란 원래 혼자서는 사람일 수도 없으며 사람일 수 있기 위해서는 나와 너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라는 T.V. 단편 드라마를 어느 날 우연히 보았다. 사십대 후반의 주부가 자기의 존재와 도움을 필요로 해왔던 자녀가 이제 다 커서 더 이상 자기의 존재와 도움을 필요치 않는 것으로 느껴 자기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상실하여 그만 우울증에 시달리는 내용이였다. 정년 퇴직을 한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던 때보다 더 빠르게 노쇠 현상이 온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자기는 더 이상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정신과 의사들은 말하고 있다. 살맛마저도 잃어버렸다고나 할까? 그렇다. 사람은 본성상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 도우며 살 수밖에 없다.

블로초, 불사초를 구하기 위하여 수천의 선남선녀를 사방으로 보낸 친시황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영생을 원하고 영생을 얻기에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오늘 복음의 한 구절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 즉 당신 생명을 인류가 필요로 하는 영생을 얻는 양식으로 주셨다. 사람을 돕기 위하여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생의 양식으로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바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제일 귀한 생명으로써, 소중한 재물으로써, 해박한 지식으로써, 갈고 닦은 기술으로써, 건강한 몸으로써, 기도로써, 훌륭한 인품으로써, 비록 가진 것 배운 것은 없었어도 예수님을 훌륭하게 키운 성모님처럼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언어 먹을 수 있는 힘도 없어 거의 전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꽃등네 사람 들처럼 사후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함으로써! 나도 무엇으로써 남을 돕기는 해야 될텐데...

## 소리

### “여름의 뒀안길에서”

올해 여름 배낭을 메고 유럽을 유랑한 우리나라 대학생이 7천여명이나 됐다고 한다.

“지난 겨울부터 휴가철마다 한국인을 여러 명 만나게 돼 고스톱을 배웠다. 헬로 코리아, 고스톱 오케이.”

스위스 알프스의 한 호텔 종업원이 한국의 어떤 기자에게 했다는 이 말은 이들 대학생 배낭여행의 부정적인 단면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형편이 허락해서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 외국여행을 하는 것을 굳이 흥분 필요는 없겠지만 노숙(露宿)에 무임승차로 ‘추악한 한국인’이라는 욕을 듣기도 한다니 부끄러운 노릇이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관광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7월 한달 동안 여행수지 적자가 1억3천2백80만달러나 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외국여행자 수도 크게 늘었거니와 씹씹이도 헤퍼져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한 사람당 1천2백50달러를 쓴데 비해 같은 기간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2천34달러를 소비해 외국인보다 배가량이나 더 썼다는 사실도 여전히 개운치 않은 느낌을 준다. ‘씩쓸이 쇼핑’, ‘코브라 쓸개 보신’ 등이 연상되어서이다.

국내에서의 피서여행 뒀소식도 별로 밝지만은 않은 듯 싶다. 쓰레기 발생량이 예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바닷가와 깊은 계곡 으스스한 곳마다 음식찌꺼기, 비닐봉지, 빈병 등이 아직도 다 치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밤이면 벌써 트락의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을 재촉한다. 가을의 청량함과 풍요를 맞기에 앞서 우리는 곧 물러가는 이 여름에 들뜨지만 말고 근면성실한 맘을 흘렸는가 되돌아 보자. **신**



하계 코이노니아를 마치고 ① 환경보호운동의 실제

“하느님과 자연 그리고 우리”

중·고 하계 코이노니아의 이번 주제는 ‘사랑받는 날’이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조화로움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지구의 모든 생물들을 사랑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하에 교구의 뜻에 맞게 우리 본당에서도 똑같은 주제로 이번 하계 코이노니아를 개최하였다.

교리교사 연수 교육을 통하여 보여진 환경오염에 대한 모습과 몇 시간의 강의 내용으로는 감히 학생들에게 짧은 지식을 전달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다. 그러나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 묻혀져 나오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자신에게도 많이 느껴졌었기에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그 뜻을 전달시키고자 했다.

부(富)의 축적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성당까지 몰고 오는 자동차의 행렬 속에서 뿜어대는 매연은 대기오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오존층까지 파괴되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 오존층이 파괴되었다 함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까맣게 타죽게 된다는 것이다. 남극과 북극에서는 이미 오존층이 파괴되었음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자꾸만 농도를 더해가는 농약물질, 각종 세제류 등으로 우리의 생명의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물이 썩어가고 있다.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는 물의 기능을 엄청나게 흘러나오는 세제류의 거품으로 마비시켜버렸기 때문에 수질오염 또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장 폐수 등으로 어패류 등이 폐죽음을 당하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다. 또 심한 악취를 뿜어내는 잡다한 쓰레기들, 부패되지 않고 매립되는 쓰레기들로 인해 지구는 커다란 쓰레기 산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다.

우리의 식생활까지도 오염이 깊이 침투되어버렸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청량 음료, 빙과류 음식을 만들 때 첨가되는 화학조미료, 라면류 등 우리의 생명이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음을 우리는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의심이 갈 정도로 오염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것들이다.

하느님과 자연 그리고 우리!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하느님의 피조물인 자연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며 우리



또한 그러한 자연을 가꾸고 보호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보며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늘과 맞닿은 산들의 웅장한 침묵 속에 고요히 흐르는 물소리...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계 수련회에서의 우리 학생들은 한쪽에 아파트처럼 늘어서 있는 텐트와 석양의 노을과 함께 멋진 조화를 연출해냈다.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와 보였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조화로움 속에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한다.

감히 환경보호운동의 실제라는 주제를 놓고 통계학적 자료를 나열해가며 환경오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나의 식견이 무척이나 짧음을 고백하며 얼마나 설득력있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한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연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며 모든 만물과 함께 그분이 보시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사명이자 사랑이다.

김 영 신(도로테아)/

요촌 성당 교리교사

결혼·약혼·파티복·남복  
**한복고려주단**  
전 광 원 (마로코)  
김 소피아  
전주시 원신고 교사동 1가 120-1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샤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관인 다예미술학원**  
방 학 특 강  
아동 미술 전문 학원  
원장과 아동 미술 전문 교사 지도  
박 경 화(마리아)  
효자동 목화APT 사거리  
☎ 223-8355

**제일 정육점**  
한우 전문점  
조 만기(요아킴)  
정 순이(안나)  
주공3단지 복합상가 내  
☎ 83-0348

잡 간!

“사이비 종교”

지난 봄 ‘다가오는 미래’의 앞글자를 딴 ‘다미 선교회’의 이장림 목사는 ‘1992년 열풍’이라는 책자를 발간, 1992년 10월에 휴거(공중으로 들리어 주님을 맞이한다)가 있을 것이며 종말이 올 것이라고 터무니없이 주장, 세간을 시끄럽게 하더니 최근 구원파(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오대양, 세모사건과 연루되어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가 6·25직후나 80년대 전후해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걸 보면 그 발생 요인은 사회적 불안과 모순의 심화, 그리고 기성종교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4백여개의 신흥종교가 있고 그 신도가 2백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가톨릭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예-여호와 증인의 경우 70%가 가톨릭 신자이다).

신흥종교가 다 사이비는 아니겠지만 사이비 종교의 공통된 특성을 보면, 신도들은 교주를 신처럼 떠받들고, 교주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그의 지배는 카리스마적이다. 또한 사이비 종교는 구체적인 내세관을 강조하고 독선적이며 시한부 말세 종말론을 퍼 사람들을 현혹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선택, 구원되었음을 주장하고, 주술적인 신비체험이 강해 일단 빠지면 교주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가정 파괴는 물론 반사회적·반인륜적 사태에까지 이른다. 이에 우리 교회는 재교육을 통해 신자들을 일깨우고, 미래의 확고한 가치관을 제시해주어야 하며, 신자들 역시 그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확고한 신앙을 갖고 완성될 하느님 나라를 향해 사랑을 실천하며 현실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교 구 소 식

※ 원고 모집 : 주제-현대의 순교, 원고지 5매 이내, 마감-8월 20일, 접수처-홍보국

1. 인사발령 : 어학 연수중이던 안철문 신부님께서 8월1일부로 마인즈 본당 주임으로 부임.
  2. 축! 견진 : 8월25일 오전 10시 옥봉 성당.
  3. 혼인강좌 : 8월25일 오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5,000원, 85-5098.
  4. 생명 공동체 운동 강좌 : 8월19일(월) 오후2시-5시 가톨릭센터 3층, 회비-1,000원.
  5. + 선종 김준석(분도·80세, 김병환 신부의 부친) : 8월9일 별세, 11일 오후1시 원평 성당 사도예절 마침, 장지-선산.
  6. + 선종 박루시아(김용태 신부의 모친) : 8월10일 별세, 장례미사-8월14일 10시40분 서신동 성당.
  7. 태아생명 보호미사 : 8월19일(월) 오전 10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 ※ 축! 영명 : 20일(성베르나르도)소순형 신부님, 21일(성비오)문선구 신부님, 24일(성바르톨로메오) 문정현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까리따스수녀회 : 8월25일 오후2시 덕진 성당 수녀원(0652)72-1222.
- 사람의 씨튼수녀회(피정) : 8월25일 9시30분-17시 본원(062)571-3004.
- 성바로로딸수도회(피정) : 9월1일 문의-성바로로 서원(0652)252-339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냉방장치 작동 중지!

에어컨 1대 사용 전기량으로 선풍기 30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냉방장치를 꼭 끄도록 합시다.

요심이(941) 김병오



원 평 꿀 배

원평 본당에서 재배한 꿀배를 주문·판매합니다.  
 등급 : 대·중·소  
 가격 : 시세에 따라 결정  
 주문처 : (0658) 43-0880(사제관)  
 (0658) 45-2111(원평 신협)  
 원평 천주교회 최용준 신부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코) 사무소

☎ (0652) 87-0088  
 (자택) 83-0087, 83-0088  
 호출기 012-681-7220  
 토지, 임야, 주택, 상가, APT  
 전세 매매 알선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생활용품

미지트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신미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 (디도)

여 직원 구함

연령 : 만18세-25세 미혼여성  
 \* 자제한 것은 직접 문의바람.  
 김복례(도미니카)  
 ☎ (0683) 82-0115

“가구의 명가”

장인 가구 (민속공예)

옥돌칠기가구

남부지점 : 전주시 중앙동2가 가구거리  
 북부지점 : 전주시 태평동1가 전주중앙상가1층61호, 2층5호  
 TEL. 남부/88-9253, 상가1층/254-9525  
 상가2층/76-9151, 하지장/82-5086  
 김성수·김미남(루시아)

대장·항문병(치질) 전문치료

서울의원

-레이저에 의한 무통 수술로써  
 수술 후 평상 활동 가능 -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상담전화 75-0550

원 목 장  
 자 개 장  
 디 크 장  
 침 대  
 쇼 파  
 식 탁  
 -일침-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축! 세례: 40명 하느님의 자녀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김글리라 수녀님 피정: 19일~30일 보람된 피정을 빕니다.
  3. 본당신부님, 사무장 휴가: 19일~24일.
  4. 신부님 휴가 기간중 미사안내: 저녁미사는 없음. 19일·22일·23일-새벽미사, 20일·21일-전10시30분.
  5. 부녀회 월례회: 21일 어머니미사 후.
  6. 유아세례: 24일 후2시30분.
  7. 장우회: 만60세이상 남성으로 결성 예정이니 사무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8. 고 김증업(야고버) 상가에서 애령회 기금으로 100,000원 기증, 감사합니다.
  9. 성령 기도회 부회장: 수석-박상규, 차석-정옥순.
  10. 금주 청소: 인후10·11반, 차주청소-인후12·13반.
- 지난주 봉헌금: 889,210원(공소포함) □ 교무금: 660,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한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신 일 군

1.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회장단회: 25일 저녁미사 후.
  3. 빈센시오회: 24일 오전10:30분.
  4. 울드리아: 25일 공식미사 후(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5.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9시.
- ※ 신부님 부친상에 기도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당청소(24일): 이 땅의 빛Pr. 밝히오리다Pr.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장세환씨 부부  
봉헌-김동수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황안국 독서-박상기씨 부부  
봉헌-윤재원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31,370원 □ 교무금: 543,7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1. 성가집회·청년회: 공식미사 후.
  2. 성서읽기: 로마9장~16장.
  3. 청소봉사: 모든 성인의 모후Pr.
  4.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금주 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 문영호 ② 송정자  
봉헌-이명수, 하필봉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 양대환 ② 김순이  
봉헌-강문옥, 황옥섭씨 부부.
  6. 감사: 성모승천 축일 행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7. 신부님 휴가: 19일부터 24일까지 휴가기간 동안 매일미사 없음.
- 지난주 봉헌금: 288,810원 □ 교무금: 247,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오늘은 연중제20주일!
1. 회의: ①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꾸리아-다음주일(25일) 오후2시.
  2. 모임: ① 전례부-8월22일(목) 오후8시.
  3. 알릴: ① 미사시간변경-8월24일(토), 8월31일(토) 오후4시 어린이미사만 있고, 8월25일(일)·9월1일(일) 새벽미사 없고, 오전9시 학생미사, 10시30분 공식미사만 있고, 저녁미사 없음. 평일에는 미사없고 말씀의 전례로 대체함(8월20일~9월6일까지 신부님 휴가기간동안). ※ 신부님 휴가기간 동안 영육간 건강을 위한 신자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② 봉성체-8월21일(수).
- 지난주 봉헌금: 565,850원 □ 교무금: 442,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환영! 금호타운 입주하신 형제자매님!!
1. 여성꾸르실료: 22일(목)-25일-천호파정의 집.
  2. 성가활성화를 위한 강좌: 19일~20일(강사: 이종철 신부), 나바 워싱턴-19일 오후2시 샌타출발.
  3. 생명공동체 운동 강좌: 19일 오후2시~5시(가톨릭센터).
  4. 주일학교 교리개강: 31일 오후3시.
  5.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환영.
  6. 청소봉사: 주공3단지APT 서편.
- 지난주 봉헌금: 529,660원 □ 교무금: 357,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 축! 「전동 100년 기념화보 출판: 권당 20,000원씩 판매(사무실문의).
1. 신자전화번호 발간예정: 업종별 신청바람.
  2. 성화회: 19일(월) 오후6시.
  3. 성모회: 21일(수) 오전11시.
  4.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2시.
  5. 다음주는 교부금 납부주일입니다.
  6. 영성체를 해서는 안될분: ① 관광성사경 1인에 한년도 고백성사 안보는분 ② 주일미사에 늦게오시는분(그 미사에 한해서) ③ 교무금을 전혀 안내시는분. □ 지난주 봉헌금: 1,518,670원
- \* 금주보수비헌금액: 60,000 \* 현재제모금액: 240,616,691  
\* 금주보수비헌금액: 없음. \* 현재신입총액: 253,119,618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김 광 탁

1. 성령 세미나: 9월2일, 7일 저녁7시30분, 회비-3,000원
  2. 여성35차 꾸르실료 강습회: 22일~25일 광명실, 양준자.
  3. 평화 쉼 100차기념 공개회의: 오늘 후4시, 많은 참관 바람.
  4. 빈센시오회: 24일 전10시,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함.
  5. 꾸리아: 25일 후2시30분, 울드리아-25일 후7시 35차 환영.
  6. 회의: 청년회-오늘 후5시30분, 성모회-21일 어머니미사 후.
  7. 종신 서원자 연수회: 19일~22일 장요셉 정이냐시아 수녀.
  8. 축! 회갑: 24일 전11시30분 문정숙(로사)님 백반집으로 초대.
  9. 가정미사: 19일-이봉순 신일5동410호, 20일-박병환 12~3, 22일-조스태파도 쌍용305동107호 각11시.
- 지난주 봉헌금: 678,010원 □ 교무금: 566,5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군

1. 지모회: 오늘미사 후.
2. 청년회: 다음 주일미사 후(청년회장단 인사드립니다), 회장-권선동(가브리엘), 총무-이병도(요한).
3. 반모임: 21일(수) 오전10시반-화산1, 오후2시반-신일APT.
4. 본당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교부금 납부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 청소봉사: 동정 마리아Pr.
6. 금주 전례: 장명순 독서·봉헌-유미나·신동섭  
차주 전례: 최정순 독서·봉헌-송덕순, 송훈식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중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1. 꼬미시움: 24일 오후3시.
  2. 모니카회 21일 오전10:30.
  3. 데레사회: 21일 오전10:30.
  4. 꾸리아: 28일 오전10:30.
  5. 본당청년 연합회: 다음주(25일) 공식미사 후 총회 및 다과회(본당 청년들의 많은 참석바람). 축하합니다! 꾸르실료스타-정진호(마리아노), 천인옥(이레네오), 장인근(다두). ※ 평일미사에 많이 참석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미사시간은 꼭 지킵시다.
  6. 미사시간 안내: 주일(06:00, 09:30, 11:00, 후7시) 월요일(06:00), 화요일(06:00, 후8시), 수요일(06:00, 후7시), 목요일(06:00, 후7시), 금요일(06:00, 10:00), 토요일(06:00, 후3시, 후5시) 오러서 성가책에 붙여 놓으세요.
- 진심으로 감사! 중교수련회 및 어린이 성경학교에 힘써주신 분들께. □ 지난주 봉헌: 1,109,760원 □ 교무금: 1,035,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홍 두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삼개리 공식미사: 23일(금) 저녁, 3. 예비자 모집: 교리시간-일 오전9:00, 수요일 오전10:00, 저녁미사 후.
  4. 평일미사에 많이 참석합니다.
  5. 꾸르실료스타탄생: 남성-김성권, 김인수 여성-김성보, 이정순, 임정진.
  6. 한나회·요셉회 단합대회 경비성금-의명 30,000원 의명 20,000원.
  - \* 차주 모임: 반석회, 오씨회.
  - \* 신축헌금 봉헌액-290,000원  
금주 전례: 해설-김광년 독서① 심학섭 ② 김정희  
기도-박천운, 임선재  
차주 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 김진호 ② 임혜경  
기도-이종진, 신윤희
- 지난주 봉헌금: 977,070원 □ 교무금: 1,359,000원